

“산업정책 플랫폼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

광주혁신추진위, 혁신과제 권고 3대분야 19개 혁신과제 발표 ‘광주경제·산업포럼’ 개최 제안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는 3일 오후 첫 번째 시장 혁신과제로 산업 정책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3대 분야, 19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경제·산업 실태 분석을 통한 국가정책과 연계한 정책 수립, 경제·산업 광역권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 체계 마련,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3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혁신 과제에는 데이터 기반의 지역산업 실태 분석과 관계기관 간 정책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장단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적인 파일럿 형태의 소규모 사업 발굴·추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 개발 등으로 지역 산업 프로젝트 발굴해 지역산업 정책을 국가 정책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와 인근 지자체 간 광역권 구축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산업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 권고안도 나왔다.

특정기관에 한정된 지역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의존성에 벗어나 광주시와 정부, 대학, 연구개발 기관 등이 연계된 산업정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정책 연 구역량 강화도 제시됐다.

혁신추진위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광주경제·산업포럼’ (가칭) 개최를 제안했으며, 광주경제·산업포럼을 인공지능을 주제로 특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

도록 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광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혁신도시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관점에서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추진위는 2018년 11월 27일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 출범해 그동안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스마트 제조 혁신,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 광주 도서관 정책 재정립,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시장혁신을 권고했다.

이번 광주경제·산업정책 역량 강화는 광주혁신추진위의 여덟 번째 시장혁신 권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상수원 오염 막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164억 투입 주암·동북 등 상수지역 토지 매입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와 전남 광역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자 측사 등 오염원을 집중 매수한다고 3일 밝혔다.

수계관리기금 164억원을 투입해 주암·동북·상사·수어·탐진호 등 5개 광역상수원 상류 지역 토지를 사들인다.

영산강환경청은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여의도 면적 약 6.6배인 19.1㎢의 토지를 매수했다. 건축물과 구조물을 철거하고 수변생태

벨트를 조성해 생태 학습장 등으로 운영 하고 있다. 토지매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신청받은 토지 가운데 상수원 유입 하천과 거리, 오염부하량 발생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을 매도자가 받아들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토지 매도를 신청하려면 영산강환경청 상수원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영산강도지 매수정보시스템(land.me.go.kr)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민주시민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자 17일까지 공모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0년 민주시민교육(광주시민대학) 보조금 지원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광주 시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 특정 단체 및 조직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광주시는 올해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확대해 운영에 나가기로 하고 참여 계층을 더욱 다양화한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응모 대상을 비영리 법인·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 마을공동체 등으로 확대한다.

2개 이상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접수는 17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민주시민교육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 감염증 선별진료소 방문 이용성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시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입택 동구청장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도민 누구나 안전공제·보험 가입 서비스

재난·재해 사망 1000만원 보장

전남도는 이월부터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비 10억원을 들여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서비스를 시작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1000만원까지 보

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 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책 사업을 발굴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장 공모

17일까지 접수...3월 합격자 발표

전남도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전남도립미술관을 이월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을 개방형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장은 미술관 운영·발전계획 수립·시행, 미술작품 및 자료 수집·전시 등 도립미술관 개관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도립미술관을 개관하면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도립미술관장’으로 직위명칭을 바꿔 전남 미술문화 진흥과 도민 참여형 미술관 운영 업무를 추진한다.

원서 접수는 2월 11일부터 17일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임

자를 선발해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는 2년이고,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립미술관은 전남 미술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부지를 광양시(옛 광양역사)로 선정하고, 2018년 7월 건립공사를 착수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립미술관에 설치할 허련의 ‘소치의고산수팔경(小癡子高山水八景·1866년 작)’, 김환기의 ‘항구(1966년 작)’, 천경자의 ‘아프리카 마켓(1969년 작)’ 등 미술사적 의미가 큰 전남 출신·연고 작가의 대표작품을 최근 구입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사회 구축 기반 마련 시급”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위원

국내 뿐만 아니라 지구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사용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제품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광전 리더스 Info(인포)’ 연구보고서에서 “인간의 일시적 편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한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관리 체계 강화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주와 전남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각각 13만3000t, 28만2000t으로 10년 전에 비해 39.7%, 28.7% 증가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광주 37.8kg, 전남 37.6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비율은 광주는 77.4%, 대구(79.4%)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남은 59.8%로 전국 평균(61.8%)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매립 비율은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위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추진, 폐기물 재활용 통계 전면 개편, 미세 플라스틱 등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대체 가능한 일회용 제품은 사용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제품은 대체 소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소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